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정현* · 정인경*¹⁾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Kim, Jung-Hyun* · Jung, In-Kyung*¹⁾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e drawn from 570 students from eleven junior high school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22.4% of students was in the risk of smatphone addiction.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group use smartphone longer for communication and had more trouble with their parents because of smartphone use. Smartphone addiction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but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consistency-intrusivenes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Furthermore, the result showe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Therefore,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 we should try to increase self-efficacy in adolescent as well a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to assist parent to understand their children.

Key words: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스마트폰 중독(smartphone addiction), 청소년(adolescent), 아버지 양육태도 (father's rearing attitude)

1) 교신저자: Jung, In-Kyung,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80, Fax: 02-817-7304, E-mail: ikjung@ca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을 기본으로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검색, 채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어 2014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72% 수준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Lee & Baek, 2011; Seo et al., 201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스마트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능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적 측면 역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Chang & Cho, 2014).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상지통증, 시력저하, 이명,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이 신체적 부작용 뿐 아니라 초조감, 의존, 주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심리·정서적 부작용 및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소홀 등의 대인관계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다른 매체에 비해 휴대하기 간편할 뿐 아니라 PC를 이용한 인터넷의 오락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다른 매체에 비해 중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실제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금단과 내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중독증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신규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특성 때문에 성인에 비해 중독에 취약할 뿐 아니라(Kim et al., 2012), 중독 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신

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가상세계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 현실에서의 자기부정, 자기실현의 좌절로 인하여 성적저하, 학습소홀, 친구 수의 감소, 대인관계 회피 및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나아가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 중독 현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자기 통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정서적·심리적인 요인과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등이 논의되고 있다(Hwang, Yoo, & Cho, 2012; Kim, Kim, & Jeong, 2012; Kim & Choi, 2013; Lee, & Moon, 2013). 이중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성향으로 다양한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Woo, 2007; Kim, Kim, & Jeong, 2012), Ryu(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지향과 금단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는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적고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내성, 강박, 금단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부작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Woo, 2007).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Lee & Moon, 2013; Park & Chun, 2013).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되며(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사고나 발달수준,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 Park, 2007). 특히, 부모의 양

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공간속에서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지지를 얻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였기에 어머니의 양육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한 연구 역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영향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온유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성실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고(Park & Lee, 2012),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Kwon & Lee, 2006)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고발달 및 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Kim(2011)의 연구결과 아버지가 자녀를 적대적, 통제적으로 대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im & Shim, 2012),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Cheon, 2014; Park & Park, 2014a).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자녀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빠져들기 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기조절과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내적 요인을 조절하거나 매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 Choi, 2003; Cho, Kim, & Heo, 2013). Hong(2009)의 연구에 의하

면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반응하여 그들 나름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 예측하였으며, Sur, You, & An(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으로 지각하는 경우 자녀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고,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지각하면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친애, 합리, 개방, 자율로 인식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비성취, 거부, 타율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Choi, 2003; Cho, Kim, & Heo, 2013). 즉, 부모가 애정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찾고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처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양육태도 보다도 자녀의 심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을 뿐 자기효능감과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보다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히, 부모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한 영향요

인임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 2)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총 11개 중학교)한 후 2학년예 재학 중인 570명의 학생(남학생 253명, 여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설문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총 700부를 배부하여 670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5.7%), 이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7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스마트폰 중독 정도, 자기효능감,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스마트폰 소유 여부, 사용시간,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 동기, 이용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이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청소년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 내성(4문항), 금단(4문항) 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장애 요인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이며, 가상세계지향성은 현실에서의 주변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상생활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더욱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금단 요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이며, 내성은 많은 시간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어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2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 기준(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세 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원점수 총점 45점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6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4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잠재적 위험군 사용자군은 원점수가 42점 이상 44점 이하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이고 일반 사용자군은 위의 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Kim(2006)이 수정하여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기효능 자신감(7문항), 자기효능 자기조절(12문항), 자기효능 과제난이도(5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효능 자신감 .860, 자기효능 자기조절 .915, 자기효능 과제난이도 .713으로 나타났다.

3)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부터 ‘매우 그렇다’를 4점까지 점수화 하였다.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하위요인(애정-합리적 설명형, 비밀관성-과잉간섭형, 과잉기대형, 감독형)으로 나누었다(Table 1).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Table 1.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Factor			
		I	II	III	IV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Q6	.804	-.080	.047	.090
	Q5	.789	-.006	.002	.112
	Q2	.763	.088	-.092	.180
	Q4	.758	-.154	.071	.238
	Q7	.738	.069	.051	.080
	Q3	.713	-.030	.039	.232
	Q1	.659	-.295	.116	.244
Inconsistence-intrusiveness	Q5	-.118	.797	.108	.022
	Q4	-.181	.771	.202	-.026
	Q6	-.114	.671	.317	.011
	Q7	-.135	.645	.276	.067
	Q3	.139	.613	.141	.123
	Q1	.113	.556	.368	-.002
	Q2	.024	.532	.478	-.004
Over-expectation	Q2	.102	.222	.784	.003
	Q1	-.020	.222	.730	.081
	Q4	.068	.332	.711	.036
	Q3	.023	.388	.593	.142
Supervision	Q1	.259	.061	.031	.853
	Q2	.343	.067	.049	.810
	Q3	.277	.061	.109	.722
Eigen Value		4.302	3.566	2.666	2.184
Variance %		20.483	16.980	12.965	10.399
Cumulative %		20.483	37.464	50.159	60.557
KMO		.891			
Bartlett test		4914.705(p<.001)			

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빈도와 평균의 차이는 χ^2 -test 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다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사용 실태

본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자가진단척도의 판정기준(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일반사용자군은 77.5%이었으며, 고위험 사용자군이 4.7%, 잠재적 위험군이

17.7%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22.4%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해당되었다. 이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연구에서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율이 25.5%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요인 중 일상생활장애(2.23점) 및 내성(2.22점)이 가장 높았으며, 가상세계지향성(1.65점)이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96.8%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사용 기간은 2~3년과 1~2년이 각각 29.4%와 29.0%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은 7.1%로 가장 적었다. 중독 정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기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의 84.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2년 이상 되었다고 응답하여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49.0%와 일반사용군의 52.8%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위험군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일반 사용자군보다 유의적으로 길었다고 보고한 Lee & Eo(2014)의 연구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Kim, Ko, & Choi, 2013)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개입 및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한 달간의 사용료를 알아본 결과, 44.1%의 대상자가 2~4만원, 29.4%가 4~6만원, 15.6%가 2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료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 < 0.01$),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사용군보다 스마트폰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score

	Smart-phone addiction			F-value	Mean(SD)
	High risk (n=27)	Potential risk (n=101)	Normal (n=442)		
Daily-life disturbance	3.24(0.34) ^a	2.89(0.34) ^b	2.01(0.45) ^c	254.426 ^{***}	2.23(0.59)
Cyberspace-oriented	2.74(0.56) ^a	1.86(0.58) ^b	1.53(0.48) ^c	83.483 ^{***}	1.65(0.57)
Withdrawal	3.30(0.40) ^a	2.24(0.57) ^b	1.76(0.48) ^c	148.007 ^{***}	1.92(0.61)
Tolerance	3.29(0.38) ^a	2.67(0.42) ^b	2.06(0.49) ^c	139.056 ^{***}	2.22(0.58)

*** $p < .00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5$ by Scheffe's test.

Table 3. Smart-phone usage

		Smart-phone addiction			n(%)
		High risk (n=27)	Potential risk (n=101)	Normal (n=442)	Total (n=570)
Possession of smart-phone	Yes	27(100)	98(97.0)	427(96.6)	552(96.8)
	No	0(0)	3(3.0)	15(3.4)	18(3.2)
		$\chi^2 = .972$			
Period of smart-phone usage	Below 6 months	0(0)	4(4.0)	36(8.3)	40(7.1)
	6 month ~ 1 year	0(0)	6(6.0)	52(11.9)	58(10.3)
	1 ~ 2 years	4(15.4)	41(41.0)	118(27.1)	163(29.0)
	2 ~ 3 years	13(50.0)	20(20.0)	132(30.3)	165(29.4)
	More than 3 years	9(34.6)	29(29.0)	98(22.5)	136(24.2)
		$\chi^2 = 26.317^{**}$			
Monthly payment for smart-phone (Won)	Below 20,000	1(3.7)	8(8.2)	76(18.1)	85(15.6)
	20,000 ~ 40,000	13(48.1)	50(51.0)	177(42.2)	240(44.1)
	40,000 ~ 60,000	10(37.0)	28(28.6)	122(29.1)	160(29.4)
	60,000 ~ 80,000	1(3.7)	2(2.0)	24(5.7)	27(5.0)
	80,000 ~ 100,000	0(0)	5(5.1)	17(4.1)	22(4.0)
	Over 100,000	2(7.4)	5(5.1)	3(0.7)	10(1.8)
		$\chi^2 = 26.438^{**}$			
Motivation of smart-phone use	Follow the trend	7(28.0)	22(22.2)	48(11.5)	77(14.2)
	Search for information	2(8.0)	7(7.1)	57(13.6)	66(12.2)
	For study	0(0)	0(0)	13(3.1)	13(2.4)
	For communication	11(44.0)	52(52.5)	193(46.2)	256(47.2)
	Other	5(20.0)	18(18.2)	107(25.6)	130(24.0)
		$\chi^2 = 19.824^*$			
Smart-phone activities	Phone call and text message	2(7.4)	5(5.1)	63(14.7)	70(12.6)
	Listening to music	0(0)	18(18.4)	69(16.0)	87(15.7)
	Game	3(11.1)	11(11.2)	64(14.9)	78(14.1)
	Messenger	19(70.4)	50(51.0)	162(37.7)	231(41.6)
	e-mail	0(0)	0(0)	0(0)	0(0)
	Internet shopping	0(0)	0(0)	4(0.9)	4(0.7)
	Watching TV/movie	3(11.1)	5(5.1)	24(5.6)	32(5.8)
	Internet search	0(0)	8(8.2)	37(8.6)	45(8.1)
	Others	0(0)	1(1.0)	7(1.6)	8(1.4)
		$\chi^2 = 26.624^*$			
Trouble with parents because of smart-phone usage	Never	0(0)	0(0)	34(7.8)	34(6.0)
	Not much	1(3.7)	6(5.9)	110(25.1)	117(20.7)
	Sometimes	3(11.1)	44(43.6)	241(55.0)	288(50.9)
	Very often	23(85.2)	51(50.5)	53(12.1)	127(22.4)
		$\chi^2 = 143.084^{***}$			

*p<.05, **p<.01, ***p<.001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구입 동기를 묻는 질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구입한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고 ‘기타’(24.0%), ‘최신 유행이라’(14.2%), ‘각종 정보검색을 위해’(12.2%),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2.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실제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41.6%가 ‘메신저’라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음악감상’이 15.7%, ‘게임’이 14.1%,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12.6%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목적에서도 중독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p<0.05), 고위험사용자의 경우 70.4%가 ‘메신저’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게임과 TV

시청이 각각 11.0%로 나타나 편중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일반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 목적에 대해 메신저(37.7%)와 음악감상(16.0%), 게임(14.9%), 전화 및 문자메세지(14.7%)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목적이 정보나 뉴스검색 보다 게임이나 SNS와 메시지를 이용한 채팅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목적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중독위험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Seo, Choi, Woo, Kim, & Lee, 2013; Lee & Eo, 2014; Lee & Park, 2014)와 유사한 경향이다. 또한, Han & Hur(2004)도 휴대전화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할수록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중독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유지 과몰입 성향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22.4%와 50.9%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자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인해 부모와 마찰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01$),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자주 있다’는 응답이 85.2%로 가장 높았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50.5%, 일반사용자군이 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하고 있고, 특히 ‘SNS 과다사용’과 ‘게임 과몰입’이 가족 간 갈등 발생의 주요 요인이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가 강압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관계가 악화되어 오히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Kim & Shim, 2012; Cheon, 2014)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및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2. 자기효능감,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r = -.393, p < .01$)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 자신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Table 4).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심리 성향으로(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감이나 자기조절능력,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1	2	3	4	5	6	7	8
1	1							
2	.000	1						
3	.236**	.363**	1					
4	.161**	.222**	.087*	1				
5	-.125**	-.126**	-.025	-.092*	1			
6	-.031	-.054	.036	.002	.459**	1		
7	.172**	.128**	.142**	.333**	-.089*	.066	1	
8	-.393**	-.146**	-.169**	-.213**	.131**	.040	-.154**	1
Average	3.85	3.88	3.22	2.92	2.17	2.31	3.22	31.15
S.D.	1.00	.83	.85	.68	.67	.76	.66	7.48

1. Self-confidence; 2. Self-regulatory efficacy; 3. Task-difficulty preference; 4.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5. Inconsistency & Intrusiveness; 6. Over-expectation; 7. Supervision; 8. Smart-phone addiction.

* $p < .05$, ** $p < .01$

과제난이 선호도가 높아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높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안, 내성, 강박, 금단과 같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또한 높아 스마트폰 중독 위험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발생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선행 연구 결과(Kim, Kim, & Jeong, 2012; Ryu, 2014) 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 성향과 금단 성향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밀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갖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Moon(1999)의 연구결과와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Yang, 2011)와 유사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과 부의 상관관계($r=.213, p<.01$), 비밀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는 정의 상관관계

($r=.131, p<.01$)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애정과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적절하게 감독하게 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Kim & Shim, 2012; Cheon, 2014)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Kim (2011)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beta=-.313, p<.001$)과 자기조절 효능감($\beta=-.120, p<.01$)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2.0%였다. 이는 자신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Young & Rodgers, 1997; Woo, 2007; Ryu, 2014).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Table 6), 애정-합리적인 설명형, 비밀관성-과잉간섭형, 과잉기대형, 감독형 양육태도

Table 5. Effects of self-efficacy on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B	SE	β	t
Self-confidence	-2.405	.338	-.313	-7.113***
Self-regulatory efficacy	-1.106	.404	-.120	-2.737**
Task-difficulty preference	-.318	.406	-.036	-.784
R ²	.230			
Adjusted R ²	.220			
F	22.970***			

p<.01, *p<.001

Table 6.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on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B	SE	β	t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1.748	.192	-.156	-3.552***
Inconsistence-intrusiveness	1.632	.539	.144	3.029**
Over-expectation	.488	.465	.049	1.049
Supervision	-.398	.514	-.034	-.774
R ²	.172			
Adjusted R ²	.161			
F	14.503***			

p<.01 ,*p<.001

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6.1%였다.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β =-.156, p < .001)와 비일관성-과잉간섭형(β =.144, p < .05)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으로 인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고, 비일관적-과잉간섭으로 인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Lee & Eo(2014)는 통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갈등도 높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 Chun(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 과잉기대, 과잉간섭이라고 지각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지각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4.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본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및 자기조절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8>과 같다. 우선, 자신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7),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신감(β =-.282)과 조절변인인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β =-.132),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β =-.110)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4% 이었다. 2단계에서 자신감과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신감과 조절변수인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fid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1 step			2 step		
	B	β	t-value	B	β	t-value
Self-confidence(A)	-2.135	-.282	-6.580***	-2.121	-.280	-6.478**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B)	-1.482	-.132	-3.224**	-1.440	-.128	-3.099**
Inconsistency & intrusiveness(C)	1.263	-.110	2.642**	1.311	.115	2.706**
A*B				-.221	-.021	-.494
A*C				-.216	-.022	-.524
F	25.554***			19.156***		
Adjust R ² (ΔR^2)	.234			.232(.001)		

*p<.05, **p<.01 ,***p<.001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1 step			2 step		
	B	β	t-value	B	β	t-value
Self-regulatory efficacy(A)	-.903	-.101	-2.329*	-.821	-.090	-2.043*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B)	-1.565	-.138	-3.175**	-1.565	-.138	-3.106**
Inconsistency & intrusiveness(C)	1.726	.151	3.482*	1.379	.121	2.718**
A*B				-1.451	-.125	-2.807**
A*C				.542	.049	1.114
F		16.059***			13.223***	
Adjust R ² (ΔR^2)		.160			.170(.014 [†])	

*p<.05, **p<.01, ***p<.001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설명력(R²)이 23.2%로 1단계 보다 감소하였고, R² 변화량과 F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인 자신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 조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단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과 애정-합리적 설명형,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을 16.0% 설명하였으며, 애정-합리적 설명형($\beta = -.138$)과 비일관성-과잉간섭형($\beta = .151$)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1.0%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특히, 조절변수인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beta = -.161$)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145$) 뿐 아니라 자기조절효능감과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109$)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스

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기조절효능감의 β 값이 감소되어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 설명을 실천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스마트폰 사용의 바른 태도에 대해 자녀가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자녀가 스스로 느끼고 사용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바람직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건강가정 생활관련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운영됨으로써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부모가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가정 생활교육이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기조절 효능감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의 차이를 기준으로 높은 군(자기조절 효능감 고집단)과 낮은 군(자기조절 효능감 저집단)으로 구분하고, 조절회귀식에 따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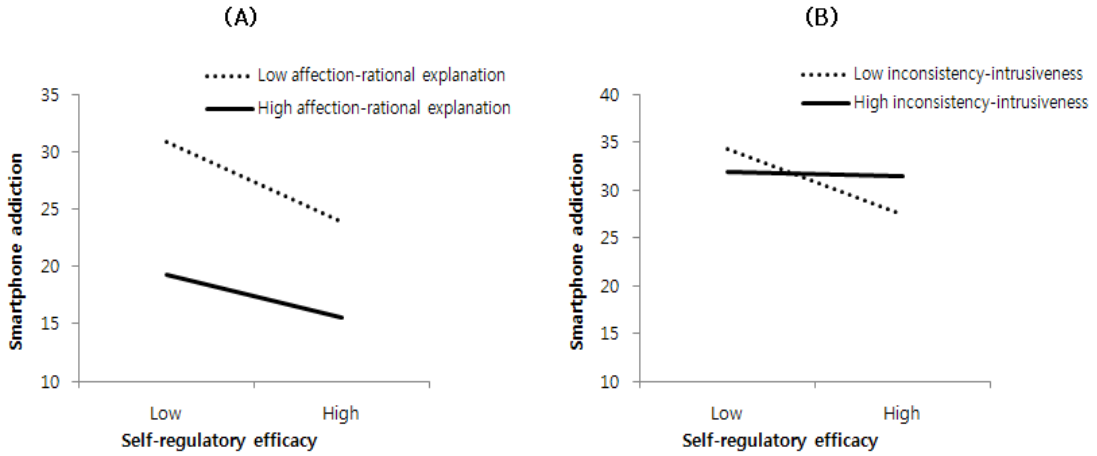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A)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and(B) inconsistency-intru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절효과 예측 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ure 1).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고,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인지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가장 낮았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더라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인지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아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Park & Park (2014b)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졌으며, Park & Chun의 연구(2013)에서도 부모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육한다고 자녀가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비일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의 조절효과회귀식 그림(Figure 1B)을 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비일관성-과잉간섭형으로 높이 인지하는 경우 자기조절 효능감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아버지가 비일관적이며 과잉간섭형이라고 적게 인지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

기조절 효능감이 높을 때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Lee & Eo, 2014)와 같은 경향으로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자녀가 잘 기능하도록 돕지만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적,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

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고찰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학생은 22.4%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사용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오랜 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며,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 더욱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위험 사용자의 경우 타인과의 신속한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기간을 줄이고, 미디어를 통한 교우관계 형성을 지양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스마트폰을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적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재미와 충동을 스스로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증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

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나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경험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비밀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보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여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쉽지만, 아버지가 애정을 갖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설명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적은 청소년이라도 아버지가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로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워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육태도를 함양하여 이를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때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대응하여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은 스스로 스마트폰의 과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부모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강압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자녀와 함께 인식하고, 자녀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술·가정교과 등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가족 건강성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

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 함양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 상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 Backer, W. C. (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ver*. New York: Russell Sage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Cheon, E.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internet/smartphone addiction in the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Cho, J. H., Kim, D. G., & Heo, G. (2013).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3), 613-624.
- Han, J. & Hur, G. H. (2004).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obile phone addiction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8(6), 138-165.
- Hong, Y. R. (2009).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n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4), 392-400.
- Hwang, H. J., & Choi, Y. W. (2003).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cience Review*, 22(1), 285-304.
- Hwang, K. H., Yoo, Y. S., & Cho, O. H. (2012). Smartphone oversu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 Jang, Y. A. & Park, J. H. (2007).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Kim, B. N., Ko, E. J., & Choi, H. I.(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67-98.
- Kim, B. N. & Choi, H. I. (2013).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9(1), 1-25.
- Kim, D., Lee, Y., Lee, J., Kim, M. C., Keum, C., Nam, J. K., Kang, E., & Chung, Y. (2012). New patterns in media addiction: Is smartphone a substitute or a complement to the internet?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71-88.
- Kim, H. J., Kim, J. H., & Jeong, S. H. (2012). Predictors of samrtphone addiction and behavioral pattern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4), 55-93.
- Kim, H. S. (2006). The ralthionship among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al activation system,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19(2), 1-23.
- Kim,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Journal of University Life Guidance*, 17(2), 37-56.
- Kim, N. Y. & Shim, H. W. (2012).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125-147.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3). Development of a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adolescents with smart-phone addic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17(1), 325-351.
- Lee, E. J. & Eo, J. K. (2014). The difference of the impulsivity

-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4(1), 1-17.
- Lee, O. K. & Baek, S. G.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usage pattern an usability of samrt phone: focused o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15(2), 323-355.
- Lee, S. J. & Moon, H. J. (2013).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2(6), 587-598.
- Lee, Y. J. & Park, J. H. (2014). The effect of use motives, self-control and social withdrawal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459-465.
- Moon, H. J. (1999).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91-122.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Investigation of Internet Addiction in 2013*,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Youth addiction and recreational survey*.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ark, E. M. & Park, K. H. (2014a).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smart phone addiction -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9(2), 209-224.
- Park, E. M. & Park, K. H. (2014b).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impul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rearing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529-547.
- Park, G. I & Lee, J. M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The Korea Parents Education Association*, 9(2), 5-20.
- Park, J. N. & Chun, J.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Work Pactice & Research*, 10, 127-160.
- Ryu, M. (2014).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nd leisure-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63-79.
- Seo, C. M., Lee, J., Choi, T. Y., Kim, J., Shin, I., & Woo, J. (2012). Study for relation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level and Korea youth self re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8(2), 223-230.
- Seo, M. J., Choi, T. Y., Woo, J. M., Kim J. H., & Lee, J. H. (2013). A comparative study of smartphone and internet addiction on adoles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9(2), 154-162.
- Suh, K. H., You, J. M, & An, K. M. (2008).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 on of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3), 675-693.
- Woo, H. J.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bile phone users' self-traits on mobile phone addiction - focusing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1(2), 391-427.
- Yang, K. S.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75-84.
- Young, K. S. & Rodgers, R.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 Chang, Y. O & Cho, N. (2014)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ocusing on the adolescents in Gyeonggi-do.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2), 137-156.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11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570명의 남녀학생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결과, 중학생의 22.4%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학생들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더 오랜 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 경험이 더 많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비밀관성-과잉간섭형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올바른 부모 양육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2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2월 17, 게재확정일자: 2015년 03월 23일